

#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병리적 상징성 연구

- 「폐어인」, 「봄과 신작로」에 나타난 질병모티프와 동물상징을 중심으로 -

전흥남(한려대)

##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병리적 상징성과 문학적 함의 |
| 2.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병리성의 양상 | 4. 맺음말             |

## 1. 머리말

최명익(1903-?)은 『백치』와 『단층』 등에 관여하면서 평양 문단의 구심체 역할을 한 작가이다. 그는 박태원, 이상과 더불어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특히 등단작인 「비오는 길」(1936)을 비롯하여 「무성격자」(1937), 「역설」(1938), 「심문」(1939), 「폐어인」(1939), 「장삼이사」(1941) 등은 내밀한 자의식에 주목한 독특한 소설로 평가받는다.<sup>1)</sup>

최명익이 해방전까지 발표한 작품은 11편 정도이고, 분단 이후에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확인되는 작품은 30편을 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현대소설사에서 최명익의 작품을 주목한 것은 그의 소설이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의 형성과 특질 나아가 1930년대 후반의 문학의 지형도를

1) 최명익의 문학적 생애와 문학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명익의 생애와 문학관을 집약해 정리해 놓은 근래의 자료는 장수익, 『최명익』(한길사, 2008년)이 있다.

가늠해 보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최명익의 소설은 자의식의 세계를 외부의 가시적인 표상들과 연계시킴으로써 의미의 확장을 생산하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즉 감각적 이미지, 은유, 상징 등을 통하여 등장인물의 내면의식을 드러내는 특징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은유는 단순한 창작기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제의식과 직결된다.<sup>2)</sup> 또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연구자들은 그의 소설에 나타난 몇 가지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작중인물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경우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 결과 그것이 갖는 병리적 상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드러나기도 했다.<sup>3)</sup>

최명익 소설에 대한 연구는 적잖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명익의 소설이 우리 근현대문학사에 던져주는 시사성이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 이러한 연구는 최명익 소설의 문제성 구명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도 사실이다. 다만, 연구자들이 그의 소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의 소설이 갖는 의미와 효과를 구명하는 연구물이 적잖게 축적되어 있다고 해서 최명익 소설이 갖는 문제성이 온전하게 구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근대성’과 관련한 논의<sup>4)</sup>와 주인공의 ‘자의식 과잉’을 전제한 논의가 많은 연구의 편중성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 자연히 대상 작품도 그런 논의를 전개하는데 유리한 『비 오는 길』이나 『심문』, 『무성격자』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려는 『폐어인』과 『봄과 신작로』의 경우도 작품 자체로서 갖는 문제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

2) 이와 관련해서는 정현숙,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은유』(『어문연구』32권 제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가 주목에 값한다.

3) 이와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물이 축적되어 있다. 이경훈, 『모더니즘 소설과 질병』, 『1930년대 모더니즘 작가 연구』, 평민사, 1999; 임병권,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은유로서의 질병의 근대적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7집, 2002; 한만수, 『모더니즘 문학의 병리적 연구』, 박이정, 2002; 박수연, 『에로스/타나토스 간 '내적 분열'의 양상과 의미』, 『현대문학의 연구』, 제37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공종구,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동양론의 전유와 변주』, 『현대소설연구』, 제46호, 2011년 등이 주목에 값한다.

4) 최명익 소설의 모더니즘적 특징과 이것이 갖는 의미와 관련해서는 적잖은 연구물이 축적되어 있다. 최명익의 모더니즘 소설은 실험적인 문체보다는 대상과 감각에 대한 치밀하고 섬세한 묘사가 두드러지는 수사학적 특징을 지닌다.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관련해서는 장수익, 위의 책, 연구서지, 183-190면 참조.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페어인』, 『봄과 신작로』의 주요 작중인물들은 질병을 앓고 있는데, 특히 두 작품은 서사의 진행과 더불어 여러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작중 인물의 내면 및 주제의 구체화에 유기적으로 연동되고 있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는 최명익 소설의 문제의식과 더불어 답론 방식 및 수사적(修辭的) 특성을 구명하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소설 속에 나타난 동물의 상징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자들도 관심을 기울인 바 있지만<sup>5)</sup>, 본고에서 다루는 경우처럼 질병의 서사와 동물 상징의 유기적 관련성의 구명은 최명익 소설의 또 다른 측면을 해명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두 작품에 나타난 질병모티프와 동물 상징을 통해 그것이 갖는 문학적 효과와 병리적 상징성을 구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출발했으며, 또 이것의 수사적 특성과 관련해서 작품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 2.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병리성의 양상

### 2.1. 『페어인』의 질병의 서사와 동물 상징

#### 2.1.1. 질병의 모티프와 서사

『페어인』에서 주인공 현일은 병약한 인물로 묘사된다. 작품 속에서 그가 각혈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되는데 결핵을 앓고 있는 상태다. 현일이 외에도 한때 M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류의식을 느꼈던 도영이는 신경쇠약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편집광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현일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집에 쥐가 많아서 밤에 잘 수 없는 환경을 토로하고, 심지어 쥐가 자는 어린 것들의 발과 손을 물어뜯기가 예사요, 그보다도 질색은 밥에 쥐똥이 늘 섞이는 것이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정도다. 하지만 도영은 생에 유별나게 집착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몸에 좋다고 제자 병수와 함께 구렁이를 잡아서 먹으려고 할 뿐 아니라 지렁이 먹는 것도 예사로 여긴다. 도영이가 삶

5) 정문권,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동물상징 연구』, 단국대 대학원, 1987.

에 집착하는 모습은 현일에게 내뱉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통해서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먹다뿐이요. 김선생이나 나 같은 사람은 첫째 비위가 좋아야 삽니다. **결벽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센치입죠. 아무런 것을 해서라두 병이 나아야지. 안 그래요? 인생으로 실패라는 것은 남이 다 사는 세상에 혼자 일찍 죽는 것이외다. 살고 불 일이지 노상 한때는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공연한 관념 유희거든요.** 병수군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나같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죽잖고 사느냐가 문제거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니까. 김선생은 그렇게 생각잡아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sup>6)</sup>(고딕 표시-인용자)

인용문을 놓고 볼 때 도영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전향(?)한 상태다. 이는 인용문 중 “한때는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공연한 관념 유희거든요”라는 도영의 발언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영의 몸이 약해지고 쇠약해지면서 정신적으로 나약해진 측면도 있지만, 당시 일부 지식인들의 전향과정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sup>7)</sup> 이는 현일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뒹속에 갇힌 쥐가 오직 할 일은 뒹 속에 있는 미끼를 먹고 사는 것 밖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소? 그런데 말요, 요놈이 꼭 그 말을 실행하는구려. 신통찮아요? 그래서 나두 이 쥐를 빼와서 이전 아무런 것이라도 먹고 살려우. 별수 있소?”  
-(27면)

도영이는 현일에게 ‘쥐의 철학’을 배우라고 조언한다. 그런 도영이가 현일

6) 신현기 책임 편집, 최명익 단편선 『비오는 길』, 문학과지성사, 2004, 34면, 앞으로 인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여기에 의존하며, 인용 말미에 인용한 쪽수만 기입한다.

7)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일제의 강압정책이 더욱 노골화되면서 한국근대문학사 전체를 관류해서 나타났던 핵심적·본질적 문제 요소들을 집약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 전향과 허무주의적 경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를 달리해서 별도의 글이 요구되며, 보다 구체적인 것은 장성수, 「1930년대 후반의 한국 “전향소설” 연구」, 『한국언어문학』 28권, 1990 및 류보선, 「환멸과 반성, 혹은 1930년대 후반기 문학이 다다른 자리」, 『민족문화사연구』 4호, 1993 참조.

은 탐탁지 않지만 면전에서 반박하지 않은 점은 현일이의 격을 말해준다. 제자 격인 병수 앞에서 설전을 벌이고 싶지 않은 배려심도 느껴지기 때문이다. 결국 도영이의 이런 삶도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보면 도영이의 그런 삶의 의지도 부질없음을 통해서 작가의식이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요컨대, 현일이의 실존적 고뇌와 지식인으로서의 자존감으로 인해 그나마 혼탁한 세상을 버려가는 힘이자 계승해 가야 할 올곧은 정신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일의 생각은 제자 병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병수는 도영이가 삶에 집착하고 온갖 동물을 먹는 행위를 일종의 ‘패기’라고 치켜세우자 현일이는 이것을 거부한다. 현일은 폐결핵을 고치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도영의 행위를 근대적 삶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저 시정인에 부응해서 쉽사리 살아가려는 도영과 같은 인텔리들을 비판한 것이다. 물론 현일이는 도영이의 이런 태도에 대해 대놓고 반발하지는 않는다. 제자 병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도영이의 “살기만 한다는 단단일념(單—念)으로 비판이니 엄세니 하는 망상이나 결벽성을 버리고 뻘이건 지렁이건 다 먹으니까 이렇게 살이 오르지 않았어요?---”하는 태도에 대해

“위험?----그에게 위험이나 남았겠나. 지금의 그이나 내게”

하고 현일은 허허 웃었다.

“그래두 도영 선생은 아직 그 패기가 장하신데요”

“패기? 패기가 아니라 그이는 지금 비판이나 절망까지도 잊어버리고만 셈이지”

----

**“정말 산 사람이라면 건강과 생을 즐길 것이지. 그러지 못하니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야겠다고 악을 쓰며 울부짖는 꼴이란 비장하달까? 그 독백이 꾀 효과적으로 들리던가?”(36-37면, 고딕표시-인용자)**

라고 넌즈시 질타한다. 현일과 제자 병수가 도영이를 놓고 벌이는 반응은 세대간의 관점의 차이를 드러낸 대목이기도 하다. 8) 이는 도영이가 성곽에서

---

8) 공중구는 최명익 소설들을 근대극복 담론의 표상으로 기능하는 질병과 죽음 모티프는 크게

피를 토하자 현일이가 병일이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습에서 절정에 이른다.

피가 좀 몇자 기신을 못 차리는 그의 입언저리의 피를 씻으려고 병수는 손수건을 들고 다가왔다. 그것을 본 현일은 병수를 떠밀어내며 노기를 띤 언성으로 “저리 가라니까” 소리를 지르고 자기 손수건을 내어 도영의 머리를 가슴에 안고 얼굴을 씻으며

“이런 더러운 피에 왜 손을 적시려나-----정신을 차리거든 내가 다리구 갈게 자넨 가게나”

병수는 할 수 없이 돌아서 성문으로 들어갔다. (41-42면, 고딕표시-인용자)

인용문에서 현일이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도영이를 돌보려는 병일이를 밀치는 장면은, 병수를 아끼고 싶은 현일이의 의중이 드러난 대목이다. 젊은 신세대인 병수만큼은 육체도 정신도 건강하게 살기를 희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전히 일상의 꿈을 놓지 않는 일부의 구세대가 신세대를 향하여 가지는 간절한 바람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반면 살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뱀과 지렁이를 잡아먹으려는 도영의 행위는 ‘시정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다른 표현으로, 나아가 ‘속물적인 욕망의 자동기계’이기도 하다. 여기서 “폐병은 추상에의 욕망을 상징하며, 뱀과 지렁이를 잡아먹고 이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은 욕망을 무화하고 시정인이 되고자 하는 것”<sup>9)</sup>으로 보는 해석도 같은 맥락이다. 최명익은 그의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속물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상을 배치해 놓기도 한다. <sup>10)</sup>

---

동양론을 전유하는 계열의 소설과 세대론을 전유하는 계열의 소설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의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로 『비오는 길』, 『무성격자』, 『봄과 신작로』, 후자의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로는 『폐어인』, 『역설』, 『심문』을 들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공종구,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동양론의 전유와 변주』, 『현대소설연구』, 제46호, 2011, 309-337면 참조. 그리고 최명익을 소설을 세대론적 관점을 적용해서 연구한 최근의 글로는 김효주의 『1930년대 후반의 세대논쟁과 최명익 소설-『역설』과 『폐어인』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6집, 2013년도 주목할 만하다.

9) 문홍술, 『모더니즘 문학과 욕망의 언어』, 동인, 1999. 263면.

10) 이를테면, 서구의 근대에 대한 최명익의 혐오와 경멸의 정조 및 태도를 담지하는 초점인물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비오는 길』의 이칠성이다. 심지어 ‘청개구리 뱀가죽 같은 놈’이라고 이칠성의 맹목적인 탐욕을 동물에 비유하는 수사는 서구의 자본주의를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등가적 교환의 대상으로 도구화하는 타락한 제도로 타자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칠성의 죽음은 자본주의에 기초한

절망과 비판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 뼈를 깎는 듯한 절망에 부대끼다 못하여 애써 빈약하지만, 1) 자기의 철학의 지식을 고집어내어 구원한 인생의 발전을 명상해 볼 때에는 청정한 공기를 호흡한듯이 상쾌함을 느끼는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자기도 한짐을 맡았으면 하는 패기도 느끼어 보는 것이다. 2)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등지고 죽어가는 자신을 생각할때 깊은 바다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한 절망을 느낄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자기의 세계라면 참고 사는때까지 살아가리라 하였다. 그렇지만 또 견딜 수가 없었고 아직 남은 마음의 탄력으로 또 상쾌한 명상으로 떠올라 보는 것이었다.

3) 그러나 지금 내게는 무엇이 남았으랴. 절망인들 남았으랴. 죽어가는 폐어(肺魚)에게 물도 공기도 무슨 소용이랴. 지금 폐어는 반신(半身) 물에 잠기고 반신 바람에 불리면서도 두 가지 호흡의 기능을 다 잃고 죽어가는 것이라고 현일은 꿈속같이 생각하며 죽은듯이 었더 있었다. (42-43면, 숫자부여-인용자)

위 인용문은 현일의 과잉 자의식과 무력감을 통한 내면 상태를 드러낸 대목이자, 동시에 최명익 문학의 전체 전개과정과도 맞물려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3) 중에서 1)은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철학의 지식’을 통해 구원한 인생의 발전을 명상해본다는 의미로, 이것은 「비오는 길」의 병일에 해당한다. 2)는 지식영역에서의 명상이 인생을 등진 상태이고, 그것이 깊은 바닷속 같은 절망을 낳았다는 의미로, 이것은 「무성격자」의 정일에 해당된다. 3)에서 현일은 절망조차 남아 있지 않고 폐어처럼 죽어가는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일은 ‘결벽성’으로 인해 시정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무덤 속의 움두꺼비가 된 「역설」의 ‘정일’이 심화된 모습이다. 11)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에 지배되어 있지만, 절망적인 현실을 담담하게 수용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작가

---

서구의 근대를 역사적 시효가 소멸된 시기로 평가하고자 했던 동양론을 비롯한 근대 극복 담론의 알레고리적 유비로 해석하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공중구, 앞의 글, 319면.

11) 문홍술, 앞의 책, 263면. 최명익의 소설 중에서 동물상징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다룬 작품 외에 「역설」에 대해서는 언급할 여지가 있다. 다만, 「역설」은 작중인물의 내면이나 서사와의 유기적인 관련성이 떨어지고 결말 부분에서 은유적으로 제시되고 있기에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역설」에서 동물에 대한 은유가 동물적인 본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화와 성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작품의 말미에 서술된 ‘冬眠에 들어간 움두꺼비’는 현실의 영합보다는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내적 성찰을 통한 재생을 소망하는 문일이의 성격을 표상한다.

의 의지가 숨어있음으로 해서 상대적인 건강성을 갖고, 아울러 작가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해준다. 12) 동시에 이 작품에서 주목할 것은 현실에서 소외된 실직 교사들의 절망과 비극을 그리는 과정에서 동물들의 등장을 통해 주제의 구체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다.

### 2.1.2. 동물의 상징성과 은유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페어인』은 작품의 서두부터 “쥐를 잡아 먹고 고양이가 죽었다”(7면)로 시작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동물의 등장은 단순히 작품의 배경 묘사에 부가적으로 끼어든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격인 현일의 몸 상태 혹은 앓고 있는 질병과 유기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날 터이지만, 『페어인』의 동물 상징은 주목할 필요성을 느낀다.

- 1) 아침 별에 간신히 뜨는 고양이의 눈은 밀화 구슬같이 영롱하던 흰자는 없어지고 옹이 빠진 구멍 같은 동자만이 한없이 깊어 보였다. (7-8면)
- 2) 찬거리에서 생고기 부스러기를 주어보았으나 고양이는 눈 떠보지도 않았다. 그같이 청승맞도록 소정하던 고양이는 더럽힌 입언저리와 수염을 쓰다듬지 못하고 눈물에 젖은 눈시울에는 눈썹까지 끼었다.(8면)
- 3) --웃어보이는 그의 얼굴은 기름기 빠진 가죽에 주름살 뿐이었다. (8면)
- 4) 현일의 눈은 최면술에 걸린 사람같이 쥐가 달리는 방향을 따라 천장 위를 밤새워 헤매는 때도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신경질이 나고 선열이 나고 식은땀이 났다. 행여 잠들까 하여 불을 끄고 누웠노리면 캄캄한 속에서 오직 귀로만 들어오는 쥐의 소동은 꼭 천둥소리와 다름이 없었다.--<중략> 기침이 겨우 진정되면 끝없는 어두움이 맴돌아 좁은 껏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이 귀가 울 뿐 캄캄한 적막 속에서 몸의 고통도 신산한 생각도 모르게 그저 허탈하고 마는 것이다. (9-10면)

12) 작품 말미에 ‘이런 더러운 피에 왜 손을 적시려나’라는 스승의 말을 병수가 되새기는 것으로 끝이 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스승의 가르침을 냉소로 일관하던 신세대인 병수가 마지막에 스승의 말을 되새긴다는 행위는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가는 길이 계승과 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김효주, 앞의 논문, 311-318면 참조

지문 1,2는 고양이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고, 지문 3, 4는 현일의 몸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쥐를 잡아먹고 고양이가 죽었는데, 죽기 전의 고양이 상태를 순차적으로 드러내면서 주인공 현일의 몸 상태 역시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현일이는 결핵으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소멸되어가는 인물이다. “고양이의 죽음은 현일이의 부재의식에 대한 은유이다.”<sup>13)</sup> 또한 소설에서는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구렁이, 뱀, 지렁이 등을 마구 잡아먹으며 병세가 호전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죽음을 향해가고 있는 도영이를 통해 생명에 대한 동물적 본능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sup>14)</sup>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 현일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재단이 넘어간 뒤로 현재는 실직한 상태다. 몇 년 동안 재직하면서 모은 돈으로 겨우 집 한 채 장만했을 뿐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 부인의 샴바느질에 의에 의해 겨우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일은 M학교 대신 새 이사회와 새 재단의 조직으로 창립된다는 H학교에 다시 취직 운동을 하는 중이다. 따라서 작품의 중간 중간에 주인공 현일이 실직한 상태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당시 지식인으로서 겪는 무력감 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 모두에서 쥐를 잡아먹고 고양이가 죽었다는 설정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현일이 더운 여름날 직업을 구하러 나서는 모습은 여름 생쥐를 잡는 고양이의 모습과도 겹쳐진다. 피를 토하며 죽은 고양이는 폐병을 앓으며 객혈을 하곤 하던 현일의 앞날을 예측해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3년이나 쥐를 잡아본 적이 없으면서도 여름 쥐를 잡는 고양이의 행위는 양심을 지키며 살다가 어쩔 수 없이 구직을 나선 현일의 행위와 여러모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당시 실직으로 겪는 지식인들의 무력감과 소외를 표현하는데, 동물의 등장과 상태를 통해서 이것의 효과를 증대하는 측면이 크다. 특히 고양이의 생리와 작중 인물 현일이의 동일시 효과가 갖는 의미와 수사(修辭)를 연동시킬 때 그것이 갖는 상징성을 통해 주제의 구체화에 기여한 점

13) 정현숙, 앞의 글. 268면.

14) 본고에서 다룬 작품들 외에도 그의 소설에는 ‘선뜩선뜩하고 번질번질한 청개구리 흰 뱃가죽’,(『비오는 길』) ‘독사의 송곳’(『무성격자』), ‘문어의 흡판’, ‘뱀의 시체’, ‘박쥐의 날개’ 등과 같은 동물의 비유적 표현이 자주 제시된다. 이러한 수사학을 통해 최명익은 세속적 인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동물적인 본능으로 표출한 것이다.

은 주목할 만하다.

## 2.2. 「봄과 신작로」의 질병의 서사와 동물의 상징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봄과 신작로」는 소재적인 면이나 삶의 재현이나 주체의 구현의 측면에서 볼 때 최명익의 다른 소설과는 상이하다.<sup>15)</sup> 또한 당시 등장했던 농촌소설의 주제구현이나 서사전개의 방법과도 변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2.2.1. 질병의 서사와 상징성

「봄과 신작로」에서 금녀의 죽음은 ‘부종’으로 그려져 있지만, 죽기 직전까지도 필사적으로 금녀가 유감이고 잡고 있는 손을 끌어서 가까이 오라는 눈치를 보이면서 “죽을 힘을 다 들여서 제 속옷과 바지를 갈아입히지 말고 물어달라는 부탁”(161면)을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표면상에 나타난 죽음의 원인과 다름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금녀는 제 병이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면서도 제가 앓는 것을 누가 알 것만이 걱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프기만 하던 배가 갑자기 붓기 시작하였다. 걸으려면 높아진 배를 격하여 보이는 발끝이 안개 속이구나 구름 위를 걷는 것같이 허전하고 현기가 났다. 아침이나 낮에도 금녀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나 다가오는 어두움과 싸우는 저녁노을같이 누렇고 희미하였다. 금녀는 이를 악물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면서도 숨기지만 하려고 애썼으나 더는 참을 수 없어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159-160면, 고딕표시 인용자)**

인용문을 통해서도 금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병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

15) 「봄과 신작로」를 제외하고 최명익의 작품들은 대부분 도시를 공간으로 설정하고, 그 곳에서 지식인들의 비극적 세계관과 파멸적 삶의 양상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공중구는, 「봄과 신작로」는 동양론에 대한 최명익의 무의식을 「비오는 길」이나 「무성격자보」보다 더 분명한 형태로 드러내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최명익 소설의 가족 공동체에서 행당채의 서자나 이복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328면)이 들 정도로 서사의 유기적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위의 글, 328-9면.

다만, 금녀가 죽어가면서까지 유감이이에게 자신의 속옷과 바지를 갈아입히지 말고 물어달라는 부탁한 것을 보면 무덤 속까지 가져가야 할 것 같은 비밀인 악의 씨앗을 지키기 위함일 것이라는 것을 추정케 할 뿐이다. 결국 금녀의 죽음은 어린 신랑이 끌고 다니던 송아지와 같이 피어나지 못한 채 끝나버린다. 금녀의 남편은 “금녀보다 두 살이나 어린 애”(140면)로 결혼식 치르고 “후행왔던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한바탕 떼를 쓰고 울”(140면)만큼 철부지다. 그래서 동리사람들이 금녀의 남편에 대해서 ‘울램’이라고 칭할만큼 철이 없고 어리다. 금녀의 어린 신랑은 자신과 똑같은 송아지의 대리 죽음을 통해 initiation(Initiation)을 겪지만, 금녀는 죽음 앞에서야 결국 그녀의 의례를 경험한다.

악으로 치유될 수 없는 금녀의 성병은 죽음으로 끝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지하에서 번져가는 아카시아의 뿌리와 지상에서 연장되는 신작로의 길이는 확대되는 악을 의미한다. 16)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서 신작로의 도시적 이미지는 죽음·병·고립 등과 같은 신화의 부정적인 원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상과 지하의 비유적 구조에서 서로 같이 짜여지는 것이다. 외래자, 즉 운전자 가 갖다 준 성병은 죽음으로 연결되는 악의 상징이다. 17) 따라서 금녀의 죽음은 삶과 죽음으로 짜여진 순리적인 순환구조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악마적인 병에 의한 변칙적인 죽음이다.

### 2.2.2. 동물 상징과 은유

『봄과 신작로』의 경우 서두에 “이 동리에서도 봄고양이가 울었다”(138면)로 시작되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금녀와 유감이가 등장과 함께 고양이 가 등장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그 고양이는 털을 거슬린 목을 짜내듯이 허리를 까부러치고 우는 것이었다.

16) 이 작품에서 평양성으로 향하는 신작로는 소설의 배경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구체화시키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작로와 자연의 길이 대비됨으로써 작품의 주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길이 주인공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으로 볼 때, 본 작품에서의 길은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구조적 참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김용희, 『현대소설에 나타난 길의 상징성』, 정음사, 1986, 66면.

17) 위의 책, 83면.

한참 서서 보는 동안에 그 고양이는 몇 번이나 울음을 멈추었다. 그때마다 금녀와 유감이의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결에 바자의 수수깡잎이 버들피리같이 울었다. 그러자 또 고양이가 우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저편에서 다른 고양이가 울기 시작했다. 이 놈이 울면 저놈이 귀를 재우고 저놈이 울면 이놈이 귀를 재우는 모양으로 서로 소리를 더듬어 가까이 갔다.

버들피리같이 우는 바자 안의 과즙기가 입에 물고 빨던 아기의 손가락이 달빛에 젖어 부엌에 빛날 때 고양이 한 쌍은 마주쳤다. 마주친 두 놈은 얼크러져서 잔디밭 언덕에서 떨어지듯이 굴러내렸다. (138-39면)

인용문은 『봄과 신작로』의 초두로서 봄날 저녁의 고양이의 짹짹기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이 소설의 서사적 핵심인 성문제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인 금녀와 유감이는 갓 결혼한 새댁들로 둘 다 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금녀의 신앙은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며, 유감이는 신앙의 일방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달밤에 들뜬 상태에서 벌어지는 고양이들의 교합은 유감이와 금녀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황을 좀 더 심화시키고 확대시키게 한다. 금녀에게 그것은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것이며, 유감이에게는 감추고 싶은 시련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달의 속성이기도 하다. 이는 빛과 어둠의 상보적인 상징성과 연관되며, 암흑의 시기 후에 오는 재생과도 같은 것이다. 이처럼 고양이에 대한 묘사 뿐만 아니라 봄, 달, 밤은 여성적 이미지로서 성적 욕망과 긴밀히 관련된다.<sup>18)</sup> 이 소설에서 고양이의 관능 즉 동물 은유는 성적 욕망을 동물적 충동성으로 인식하는 매개체이다. 전통적으로 삶에 전해져 오는 민간신앙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금녀의 죽음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서 “금녀의 죽음을 통해 성적욕망으로 표상되는 근대화에 대한 부정의식이 외화된 것”<sup>19)</sup>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을 수반하고 있다. 고양이는 충동을 지시하는 상징의 기표이다. 이 상징의 기표는 짐자동차라는 어휘로 대체되면서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전이된다.<sup>20)</sup> 즉 “이 텍스트의 주요한 기표이자 상징인 고양이와 짐자동차는

18) Eliade, Mircea,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형설출판사, 1979, 182면. 김용희, 앞의 책, 68면 재인용.

19) 정현숙, 앞의 논문, 268면.

20) 최명익의 소설에는 자동차 혹은 기차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은 근대화에 대한 표징이나

욕망의 출현과 욕망의 이행, 욕망의 좌절이라는 주체의 불안한 방향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21)</sup>.

이 작품에서는 고양이 외에도 여러 동물이 등장한다. 특히 작품의 말미에 금녀가 죽기 전날 금녀 시집 송아지의 갑작스런 죽음은 이 작품의 주제의 구체화에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소의 번사로 온 동리가 불안에 싸여 떠돌고 있는 저녁에 금녀의 갑작스런 죽음도 그렇고 송아지의 죽음이 아카시아 껍질을 먹은 탓이라는 신문의 기사로 미루어 동네가 흥흥하게 된 것이다. 금녀의 죽음도 큰 슬픔이지만, 농민들에게 있어 송아지는 귀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금녀가 죽기 전날 저녁에 금녀네 시집 송아지가 죽었다. 그날 아침에 금녀의 새스방이 끌고 나가서 동독 아카시아나무에 매었던 송아지가 갑자기 죽었다. 시어머니는 세상살이 반 밑천을 잃어버렸다고 에누다리를 하며 통곡했다. 시아버지는 소를 돌보지 않았다고 아들을 때렸다. (160면)

금녀가 죽기 전날 송아지의 죽음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금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서사의 전개상 다소 급작스러워 서사의 개연성이 떨어지고, 더욱이 송아지의 죽음은 ‘아카시아 껍질을 먹은 탓’(161면)이라는 신문 기사를 통한 추측성 보도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 송아지가 급작스럽게 죽은 원인과 더불어 이러한 변고가 금녀의 죽음을 전후해서 일어난 사건의 연관성이다. 금녀와 송아지의 죽음은 손님격인 운전수와 아카시아에 의해서 생명력이 ‘꺼이고 삭으려’진 형국이며, ‘신작로’와 ‘운전수’로 상징된 근대 문명은 욕망의 성취나 행복과는 거리가 먼 파멸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사악한 존재가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추상적인 상태로밖에 제시되지 않았던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특성을 보여준 것이다.

---

외적 현실과 내면 의식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물론 작품마다 기차의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작중인물의 자의식의 세계로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심리적인 통로인 것은 공통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혜실, 『최명익의 소설과 승차의 테마화』, 『한국모더니즘 소설 연구』, 민지사, 1992; 장수익, 『최명익론-승차모티프를 중심으로』, 『외국문학』, 열음사, 가을호, 1995; 김미영, 『근대소설에 나타난 ‘기차 모티프’ 연구』, 『한국언어문학』 54집, 한국언어문학회, 2005. 박종홍, 『최명익 소설의 공간 고찰-기차를 통한』, 『현대소설연구』 48권, 2011 등이 주목에 값한다.

21) 김동현, 『최명익의 <봄과 신작로> 연구』 『우리문학연구』, 20집, 2006, 144면.

소는 또한 생존을 위한 자연적 생산물에 거의 혹은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토테미즘의 기본 조건을 충분히 제시해 주고 있다.<sup>22)</sup> 13세의 신랑이 송아지를 끌고 다니며, 30세의 장정이 마차 달린 황소를 끌고 다닌다는 점에서, 이들 동물은 작품 속에서 의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녀 남편의 경우는 소에 대한 원시적 심성(primitive mentality)과 더불어 제의적(祭儀的)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송아지를 죽게 한 아카시아는 외래적인 것으로 우리의 전통과 대척된다. 여기서 소나무와 아카시아를 전통과 근대화에 대한 은유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신주의와 물질주의를 각각 표상한다. 이런 점에서 ‘아카시아’는 외래 문명을 상징하며, 궁극적으로 타율적인 근대화를 의미한다.<sup>23)</sup>

문 밖에 나선 금녀는 이슬에 젖은 아카시아 잎이 뺨에 스치고 아카시아 사시가 치마에 걸리는 것도 모르고 걸었다. 무서운 줄도 모르고 슬픈지, 기쁜지도 알 수 없었다. ---중략--- 송아지가 죽은 원인은 아카시아 껍질을 먹은 탓이라는 기사가 난 신문이 구정 집에 온 날 금녀의 상여는 나갔다. 온 동리 사람들은 심지도 앓고 접하지도 않았지만 산에나 들에나 마당 귀에나 심지어 부엌 담 안까지 뻗어온 아카시아 나무를 새삼스럽게 훑어 보며 소 돼지를 경계하였다.

인용문을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듯이, 왕성한 생명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소와 금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카시아를 통해 근대화의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근대화가 발전이 아니라 중국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에 지나지 않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22) 김용희, 위의 책, 67면.

23) 아카시아는 개화와 더불어 들어온 외래 문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역설』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이 땅의 주인격인 꼬부장한 소나무 몇 그루, 손님격이면서도 개화의 발자취를 따라 어디나 넓게 자리를 찾아하는 뽕푸라 아카시아, 이 땅의 백성같이 성명 없이 났다. 꺾이고 삭으러지는 꽃나무 오리나무 같은 잡목과 그리고 흔히 무덤가에 노란 꽃이 피는 사철화가 몇 떨기 난 그대로 목책 안에 갇혀 있을 뿐이다”(126면)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것을 말을 바꾸면, 주인격인 소나무가 손님격인 뽕푸라나 아카시아에 의해 둘러싸여 마치 목책 안에 갇혀 있는 형국이 곧 당대 식민치하의 현실이라는 해석(강진호, 『한국 근대문학 작가 연구』, 깊은샘, 1996, 127면)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 3. 병리적 상징성과 문학적 함의

앞에서 분석한 『페어인』, 『봄과 신작로』에서 작중인물들이 각종 질병<sup>24)</sup>을 앓고 있다. 『페어인』은 현실에서 소외된 실직 교사들의 절망과 비극을 그린 소설로 『무성격자』, 『역설』과 연장선상에 놓인다. 요컨대, 그의 일제 말기 대부분의 작품들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겪었을 비애와 절망을 서사의 구성적 의식으로 동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명익의 소설들은 “혼돈과 분열에 빠진 지식인의 무기력하고 우울한 내면을 묘사”하는 “중일전쟁기 식민지 조선 문학의 주류”<sup>25)</sup>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최명익의 여타의 작품들도 그러하거나 이 소설에서도 질병은 은유로서 등장인물의 내면의식과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페어인』의 등장인물인 현일과 도영은 둘 다 실직상태이며 결핵환자이다. 그들은 ‘결핵증’을 지닌 순수한 사람들이었지만, ‘건강과 시대인식’에 트집잡혀 사회와 조직으로부터 추방당한 지식인들이다. 이들이 앓고 있는 결핵은 ‘은유적으로 영혼의 질병’이며<sup>26)</sup>, 그것은 왜곡된 근대화에 대한 병리학적인 반응이다.

『봄과 신작로』에서 질병은 주제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소설은 근대화가 초래한 전통사회의 파괴적인 비극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동시에 순박한 금녀가 트럭 운전수가 옹긴 성병으로 죽는 사건을 통해 근

---

24) 의료사회학에서는 질환(disease)과 질병(illness)을 구분하여 사용한다.(문장진, 『보건의료 사회학』, 신광출판사, 1990, 289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구분은 비판받고 있으며 이전에는 ‘자연적’ 범주로 여겨지던 대상, 다시 말해 질환과 몸도 이제는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에서 다루는 영역으로 여겨진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자연적’ 범주란 것도 본질적으로 사실은 사회적 활동의 산물이며 단순히 불변의 생물학적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덧붙여 병(sickness)개념은 환자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가진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사라 네틀던, 조효제 역,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7, 41-45면 참조.

25) 김철, 『식민지를 안고서』, 역락, 2009, 217면

26) 기독교적 죄의식과 관련된 폐병의 이미지는 정화(淨化)된 삶을 상징하기도 한다. “결핵이 폐, 몸 위쪽으로 있는 영적으로 확장된 기관과 관련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면, 앓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신체부위(결장, 방광, 직장, 유방, 자궁, 전립선, 고환 등)에 침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는 Susan Sontag의 저서(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런 점에서 “매독은 은유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질병 자체는 신비스러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무시무시한 질병일 뿐이었다”(위의 책, 91면).

대화의 속약성을 극단적으로 고발한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에서의 성병은 근대 자본주의의 재앙에 대한 은유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최명익의 소설에서 질병은 근대 자본주의 이행기에 처한 지식인의 내면의식과 근대화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의식과 관련된다. 최명익의 소설 속에 나오는 작중인물들 즉 명일, 정일, 문일, 현일은 일상적인 현실에서 유리되어 암울한 내면을 지닌 인물들이다. 이들은 ‘자존심과 결벽증’으로 왜곡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소외된 인물들이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최명익은 일련의 작품에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주인공을 통해 강요된 근대화의 폐해와 식민지 현실의 암울함을 매우 절감 있게 포착해 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질병은, 표면적으로는 “활기보다는 쇠퇴해가는 사회나 시대적 상황 및 활력적인 생명력이 허약해진 젊은 청년들의 신체적 은유”<sup>27)</sup>로 기능하는데, 이를테면, 『무성격자』의 문주와 『폐어인』의 현일이 앓고 있는 결핵, 『심문』의 현혁이 앓고 있는 아편중독증 등은 죽음의 공포와 퇴폐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당대 식민지 현실의 불건전성을 상징한다.<sup>28)</sup>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최명익 소설에서의 “질병-신체 모티프는 어떤 가능성이나 능동성도 소멸되어 버린 상황을 암시하는 압축적 형상”<sup>29)</sup>이다. 최명익의 소설은 자기 부정과 자기 환멸이 만연한 시대의 정서를 질병과 죽음이 편재하는 상황으로 은유한다.

최명익 소설에서의 질병의 모티프는 주체의 정신적·심리적 위축 상태와 함께 이러한 양상을 초래한 현실의 정황을 외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기제이다. 질병의 상상력이 작동하는 장소는 신체다. 질병이 일차적으로 신체적 물리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신체는 최명익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소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 질병-신체는 서로 밀접한 의미 연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의미 연관은 미학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최명익 소설에서의 질병은 소재를 넘어선 특정한 세계관 즉 비관주의의 표상물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근대의 수동적 대상으로 전락한 조선적 조건을 의미하는 것

27) 이재선, 『현대 소설의 서사주제학-문학 모티프와 테마를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2007, 198면.

28) 한만수, 『최명익 소설의 미적 모더니티 연구-〈비 오는 길〉에 나타난 ‘신경증’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32집, 367면.

29) 김예림,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출판, 2004, 117면.

으로 해석”<sup>30)</sup>되고 있다.

물론 어느 시기의 문학작품에도 질병은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렇다 해도 소재의 사용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대가 있는데, 우리 문학사에서는 30년대 후반이 그런 시기였다. 이 시기 소설에서는 시대적 분위기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내면을 표현하는데 질병의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질병이 개인적인 현상임에 틀림이 없지만 병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문학작품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대소설에서 질병이 문제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병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병을 앓고 있는 개인의 내면, 또는 그 배경이 되는 사회현상 때문일 것이다.”<sup>31)</sup> 더욱이 최명익 소설에서 질병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도 최명익의 작품 속에서 작중인물이 앓고 있는 질병의 상징성과 동물 상징이 갖는 은유를 해석하고 이것이 갖는 의미를 구명하는데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4. 맺음말

이 글은 최명익 소설에 나타나는 질병과 죽음의 표상 그리고 동물 상징이 갖는 의미를 구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출발했다. 특히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 작품의 경우 작중인물들이 각종 질병으로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최명익의 소설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서도 그 밖의 작품들과 다른 몇 가지 특성에 주목하였다. 『페어인』과 『봄과 신작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페어인』의 경우는 현실에서 소외된 실직 교사들의 절망과 비극을 그리는 과정에서 작중인물들이 질병이 앓고 있는 것과 동시에 동물들의 등장을 통해 주제의 구체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어인』의

---

30) 위의 책, 119면.

31) 김한식, 『30년대 후반 모더니즘 소설과 질병-최명익과 유항림의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28호, 2001.220면.

동물 상징은 단순히 작품의 배경 묘사에 부가적으로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물이 앓고 있는 질병의 상태와도 유기적으로 얽혀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는 최명익의 소설이 동물에 대한 은유를 통해 인물의 성격과 주제를 구체화하는 특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요컨대, 작중인물의 내면 세계나 주제의 식으로 치환됨으로써 유사적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폐어인』의 경우는 동물의 은유를 통해 추상적인 의미가 구체화되고,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고 또한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수사학적 특징을 지닌다.

한편,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봄과 신작로』의 경우도 봄날 저녁의 고양이와 짝맞기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이 소설의 서사적 핵심인 성문제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이 소설에서 고양이의 관능 즉 동물 은유는 성적 욕망을 동물적 충동성으로 인식하는 매개체이다. 금녀의 죽음을 통해 성적 욕망으로 표상되는 근대화에 대한 부정의식이 극적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두 작품을 분석해 본 결과, 그의 소설에서 작중인물이 앓고 있는 질병은 근대 자본주의 이행기에 처한 지식인의 자의식과 등치된다. 이들의 질병은 실직, 소외, 심적 동요, 죽음 등과 긴밀하게 관련됨으로써 건강, 효용성, 풍요, 발전 등을 절대 가치로 내세우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동시에 그의 소설은 고양이, 소, 소나무, 자동차 등 동·식물에 대한 은유가 제시되는데, 이러한 은유는 인물의 성격과 주제의식의 표출 그리고 서사적 전개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최명익 소설의 이러한 성격이 보다 구체적으로 구명되고 심화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을 좀 더 넓히고 다른 모더니즘 작품과의 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공종구,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동양론의 전유와 변주」, 『현대소설연구』, 제46호, 2011년.
- 강상희, 『한국 모더니즘 소설론』, 문예출판사, 1999.
- 강진호, 『한국 근대문학 작가 연구』, 깊은샘, 1996.
- 김예림,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출판, 2004.
- 김용희, 『현대소설에 나타난 길의 상징성-이니시에이션 구조를 중심으로-』, 정음사, 1986.
- 김윤식, 「메타포로서의 결핵」, 이재선 엮음, 『문학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6.
- 김철, 『식민지를 안고서』, 역락, 2009.
- 김한식, 「30년대 후반 모더니즘 소설과 질병-최명익과 유항림의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28호, 2001.
- 김효주, 「1930년대 후반의 세대논쟁과 최명익 소설-『역설』과 『페어인』을 중심으로」, 『어문논집』56집, 2013.
-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10.
- 문홍술, 『모더니즘 문학과 욕망의 언어』, 동인, 1999.
- 류보선, 「환멸과 반성, 혹은 1930년대 후반기 문학이 다다른 자리」, 『민족문화사연구』 제4호, 1993.
- 박수연, 「에로스/타나토스 간 '내적 분열'의 양상과 의미」, 『현대문학의 연구』, 제37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 신형기, 「최명익과 쇠신의 꿈」, 『분열의 기록』, 문학과지성사, 2010.
- 이경훈, 『모더니즘 소설과 질병』, 『1930년대 모더니즘 작가 연구』, 평민사, 1999.
-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문학모티프와 테마를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2007.
- 임명진, 『한국근대소설과 서사전통』, 문예출판사, 2008.
- 임병권,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은유로서의 질병의 근대적 의미」,

- 『한국문학이론과비평』17집, 2002.
- 장성수, 『1930년대 후반의 한국 “전향소설” 연구』, 『한국언어문학』 28권, 1990.
- 장수익, 『최명익』, 한길사, 2008
- 장수익, 『최명익론-승차모티프를 중심으로-』, 『외국문학』, 1995, 8.
- 정현숙,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은유』, 『어문연구』32권 제1호, 한국어문교육 연구회, 2004
- 정홍섭, 『1930년대 후반 한국소설에 나타난 허무주의 연구』, 『민족문학사연구』제32호, 2006.
- 진정석,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근대성의 경험 양상』, 『민족문학사연구』제8호, 1995, 12.
- 차승기, 『반근대적 상상력의 임계들』, 푸른역사, 2009.
- 채호석, 『한국 근대문학과 계몽의 서사』, 소명출판, 2002.
- 한만수, 『모더니즘 문학의 병리성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2002.
- K. 호니, 이해성 역, 『문화와 신경증』, 문음사, 1994.
- 사라 네틀턴, 조효제 역,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7
- 알랜 래들리, 조병희·전신현 역, 『질병의 사회심리학』, 나남신서, 2004.
- 키르 케고르, 이명성 역, 『불안의 개념』, 홍신문화사, 1988
- 필립, 휠라이트, 김해옥 역, 『은유와 실제』, 문학과 지성사, 1982.
- 프레데릭 F. 카트라이트·마이클 비디스, 김훈 역, 『질병의 역사』, 가람기획, 2004.
- 헨리 지거리스트, 이희원 역, 『질병은 문명을 만든다』, 몸과 마음, 2000.
- Sigmund Freud, 황보석 역, 『억압 증후, 그리고 불안』, 열린책들, 1997.
- Susan Sontag,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 【국문초록】

이 글은 최명익 소설에 나타나는 질병과 동물 상징이 갖는 효과와 문학적 함의를 구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출발했다. 특히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 작품의 경우 작중인물들이 각종 질병으로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최명익의 소설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본고에서는 「페어인」과 「봄과 신작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두 작품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페어인」의 경우는 현실에서 소외된 실직 교사들의 절망과 비극을 그리는 과정에서 작중인물들이 질병이 앓고 있는 것과 동시에 동물들의 등장을 통해 주제의 구체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어인」의 동물 상징은 단순히 작품의 배경 묘사에 부가적으로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물이 앓고 있는 질병의 상태와도 유기적으로 얽혀 서사가 전개되고 있었다. 이는 그의 소설이 동물에 대한 은유를 통해 작중 인물의 성격과 주제를 구체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요컨대, 작중인물의 내면 세계나 주제의식으로 치환됨으로써 유사적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페어인」의 경우는 동물의 은유를 통해 추상적인 의미가 구체화되고,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고 또한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수사학적 특징을 지닌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봄과 신작로」의 경우는 봄날 저녁의 고양이 의 짝찾기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이 소설의 서사적 핵심인 성문제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이 소설에서 고양이의 관능 즉 동물 은유는 성적 욕망을 동물적 충동성으로 인식하는 매개체이다. 금녀의 죽음을 통해 성적 욕망으로 표상되는 근대화에 대한 부정의식이 극적으로 제시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최명익의 소설에서 작중인물이 앓고 있는 질병은 근대 자본주의 이행기에 처한 지식인의 자의식과 등치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질병은 실직, 소외, 심적 동요, 죽음 등과 긴밀하게 관련됨으로써 건강, 효용성, 풍요, 발전 등을 절대 가치로 내세우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동시에 그의 소설은 고양이, 소, 소나무, 자동차 등 동·식물에 대한 은유가 제시되는데, 이러한 은유는 인물의 성격과 주제의식의 표출 그리

고 서사적 전개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주제어 : 결핵(폐병), 신경성, 병리성, 신경쇠약, 광기, 낭만성, 근대성, 기제, 히스테리, 마니에리슴, 방략, 질병 모티프, 불안, 최명익, 내적분열, 모더니즘, 트라우마.

【Abstracts】

## A Study about Pathologic symbolism in the novels of Choi, Myung-ik

– Focusing on disease motive and animal symbol in 『peaieain』 and  
『spring and a newly constructed road』 –

Jeon, Heung-nam

I wrote this paper to find the meaning of disease and animal symbol in the novels of Choi, Myung-ik. Many characters in 1930's modernism novels suffer from diseases. This trend is found in the novels of Choi, Myung-ik. So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is trend in 『peaieain』 and 『spring and a newly constructed road』 which are written by Choi, Myung-ik.

First, characters in 『peaieain』 are unemployed teachers who fall into sorrow and despair because of isolation. They suffer from diseases. At the same time, the appearance of animals in 『peaieain』 contribute to materialization of this trend. Animal symbol in 『peaieain』 is not only description of background. Animal symbol is closely connected to the disease of characters. This means that metaphor about animals is connected to shaping up the personality of characters and the theme of 『peaieain』. So in 『peaieain』, metaphor about animals is used in definitizing abstract meanings, making new meanings and extending denotation. Because of this reason, I think that metaphor about animals has rhetorical peculiarity.

cat's mating in spring night is described in 『spring and a newly constructed road』. And this description metaphorically show a sex problem which is main topic of 『spring and a newly constructed road』. Especially, we can understand the sexual desire in 『spring and a newly constructed road』 by the animal impulse because of the metaphor about animals. Death of Geunia shows negative awareness of the modernization which is represented by the sexual desire.

On analysis, the disease of characters in 『peaicain』and 『spring and a newly constructed road』 is identical to the self-consciousness of chosun intellectuals who faced the turning point of modern capitalism. The metaphor about animals and plants appear in the novels of Choi, Myung-ik. And I think that this metaphor is effectively contributed to the personality of characters, main theme and narrative development. Finding concretely this trend in the novels of Choi, Myung-ik would be conducted by widening subject of analysis and comparing other modernism novels. But I leave it to the next challenge.

Key words : tubercles, neurosis, pathology, neurasthenia, madness, the romantic, modernity, device, hysteria, manierisme, strategy. disease-motif, modemology, Choi Myoung-ik, the inner division, modernism, trauma.

이 논문은 2014년 7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8월 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8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